

건축비평 _ 해나 하우스

압축된 시간을 넘어서는 풍경의 구축

Architectural criticism _ HANNAH HAUS
Building scenery beyond compressed time

글. 신호섭
SHIN, Hosoub
(주)건축사사무소 신 · 건축사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이 열주처럼 주황색 지붕을 뚫고 내려가 있다. 날카롭게 대비되는 풍경이 눈에 스쳐 지나가고 계속 보다보면 마치 그 집안에서 자라난 기둥들인 듯 자연스럽게 까지 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나 하우스의 첫 인상은 이렇게 매우 강렬하고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리모델링 설계는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리모델링 설계와 증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더욱 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해나 하우스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건축적 해법으로 풀어 나갔을까? 궁금증이 커지면서 다시금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 건물이다.

본 건물을 설계한 신문군 건축사는 설계 노트에서 37년의 시간적 간극을 이야기한다. 그 것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결국은 오랫동안 축적된 시간의 켜가 형성시켜 놓은 건축의 옛 조직과 새롭게 만드는 조직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여 진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효용과 가치에 있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리모델링과 증축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목표인데 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한 여러 지표들로 증명해야 하고 경제성으로 입증해야 한다. 상업적으로도 이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편의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앞서 얘기한 37년의 시간적 간극과 더불어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자 모티브였을 것이다.

주황색 지붕을 머리에 인 단아한 건물은 지난 10년간 건축주의 일상을 담았던 그릇이었다. 이 안에는 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있고 계속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감정들의 물리적 배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건물은 낡고 기능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지점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신축해야 하나 하는 고민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민의 끝에서 오래된 건물은 살아남아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보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도심지에 짓다 보면 대부분 뻘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프로그램적 한계와 예산의 제한 등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 해나 하우스는 이런 상황속에서도 연와조로 된 옛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37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새롭게 도입한 건축적 풍경 속에서 압축적으로 해결해 낸다. 단순히 옛 것과 새것의 조화로움을 넘어서서 압도적인 힘을 분출시키고 도시의 새로운 풍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근생건물에서 벗어나 다른 유형의 미학적 가치를 제시한다고 보여진다.

동선적으로는 코너에서 들어가는 계단공간이 흥미롭다. 옛 건물의 반대편에 노출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중정형태의 계단은 방문자와 거주자 모두에게 멋들어진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햇빛과 바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골목길에서도 개방감을 가질 수 있기에 공공적인 측면도 강화된다고 보여진다. 임대공간까지는 분리된 동선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옛 건물에도 임대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공간적 층위가 확보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4층 위에는 야외 테라스가 위치해 있어서 탁 트인 공간감을 선사한다. 이는 위의 2개층으로 된 매스와 분리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상부의 형태는 골드문트사의 아폴로지 스피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지하2층에 지상6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동선적인 단조로움 없이 조직되어지고 저층부의 옛 건물 및 주황색 지붕과 상층부의 새로운 콘크리트 박스의 만남을 중간 보이드 공간을 통해 중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아마도 이 부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게 구조적 해법이다. 연와조의 옛 건물은 여러모로 구조적 취약성을 띠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내부의 보강이나 보수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주황색 기와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콘크리트 열주의 모습을 보면 쉽지 않았을 시공과정이 상상이

된다. 노출콘크리트로 정갈하게 만들어진 사각의 기둥들은 정연한 질서를 띠면서 입면에 그리드를 만든다. 이런 구조적인 명확성은 안정감과 더불어 아름답게 다듬어진 기둥 사이 공간의 보이드를 주변 길들에 선사해 주게 된다. 감추지 않고 구축하는 방법론을 명쾌하게 드러냄으로 인해 건축사가 의도한 37년의 시간적 간극을 좁히는 가장 압축적인 해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25미터의 거대한 건물 매스는 이렇게 구옥의 형태와 의미를 감싸 안으면서 구옥 자체를 구조적 기반으로 보고 그 곳에서부터 뻗어 나오는 기둥들의 절제된 질서를 일정한 체계의 분절로 리듬감을 주고 나누면서 구옥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조직과의 어울림 또한 고려했다.

해나 하우스의 주재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원래 옛 건물인 구옥의 벽돌과 주황색 기와 지붕이고, 둘째는 증축하는 새로운 부분에 쓰인 노출 콘크리트이다.

약간 붉은 빛이 도는 벽돌과 주황색 기와 지붕이 만들어내는 주된 분위기는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의 재료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거리가 되었을 거라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구옥을 감싸고 구조적으로 하나의 개체로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대비시키고 조화시켜야 하는지는 선택하고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출콘크리트를 적용하는 재료적 해법은 좋은 대안이었다고 보여진다. 노출콘크리트가 가지는 중성적 재질감과 날 것 그대로의 즉물성은 거칠면서도 구옥의 벽돌과 주황색 지붕과 어우러지면서 의외로 따뜻한 대비를 이루게 한다. 처음에 약간은 충격적으로 보이던 두 건물의 대립은 순간 다음 단계인 37년의 시간적 간극이 압축된 정연한 질서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그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오래된 동네인 서래마을에는 기존 도시 조직이 가지는 의미들이 많다. 이를 옛 것이라 치부하며 무시하지 않고 다시금 보듬어 안고 재해석하는 해나 하우스의 미덕은 지금 근생건물이라는 유형적 한계에 갇혀 있는 많은 건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더불어 37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서 더 오랜 시간 해나 가족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며 그들의 일상을 담아갈 것이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신호섭 (주)건축사사무소 신 · 건축사

신호섭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와 프랑스 마르라 발레 건축학교에서 프랑스국가공인 건축사(DPLG)를 받고 한국에서 건축사(KIRA)를 취득하였다. 프랑스 파리와 한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실무를 쌓았고 2010년 건축사사무소신 SHIN architects를 설립하여 흥미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근작으로 창2동 청소년누리터 위드, 네오플 제주도 신사옥 네오마루, 도토리소풍 제주원 어린이집 등이 있다.

hosoub@shinarchitec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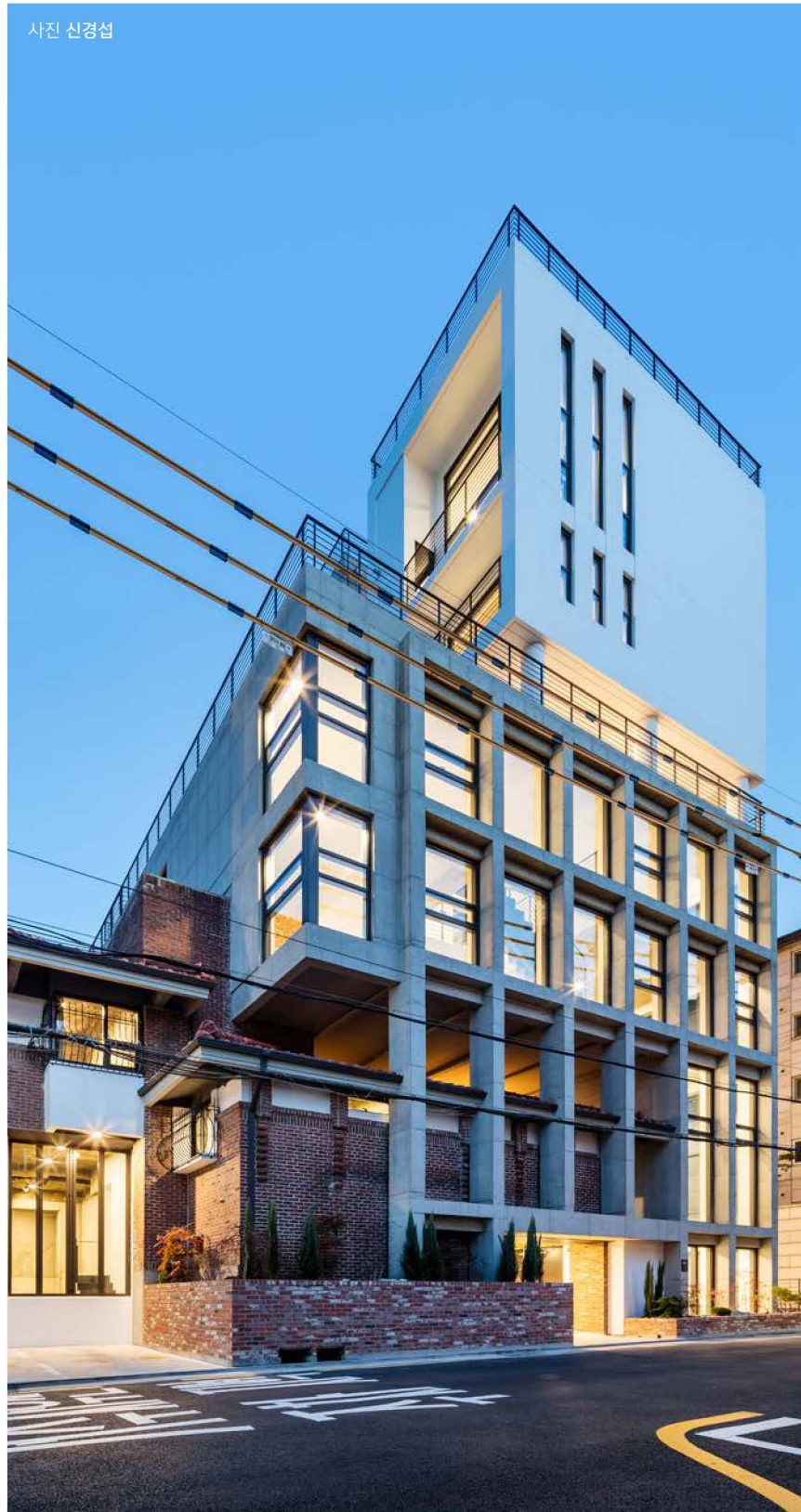


사진 신경섭